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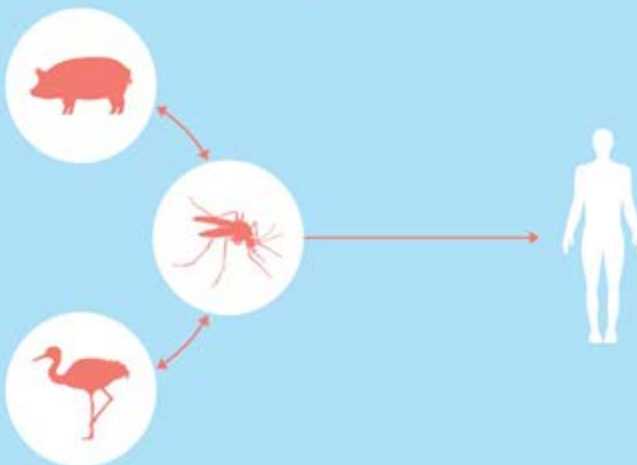
일본뇌염은 동물과 사람 사이의 전파가 가능한 인수공통감염병입니다



1/8

일본뇌염이란?

일본뇌염은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 야생조류를 흡혈한 모기가 사람을 물어 감염되며, 사람간 전파는 없습니다.



2/8

일본뇌염 매개모기 특성

-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띠고 뚜렷한 무늬가 없습니다.
- 겨울철 돌틈이나 갈대숲에서 월동 후 봄철 남해안 지역에서 최초 출현하여 8~9월 전국적으로 분포하여 10월 말까지 관찰됩니다.
- 주로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에 서식하고 야간에 흡혈활동을 합니다.



3/8

일본뇌염 발생현황

-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국가에서 약 68,000명의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하고, 약 13,600~20,400명이 사망합니다.
- 우리나라를 포함한 25개국이 일본뇌염 위험국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호주, 방글라데시, 부탄, 브루나이, 바마,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네팔, 북한,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대만,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해역 제외)

4/8

일본뇌염 주의보 및 경보

- 우리나라는 9월~10월 사이에 환자가 주로 발생합니다.
- 일본뇌염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서 매년 일본뇌염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합니다.

일본뇌염 주의보 및 경보 발령 기준

주의보

- ▶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당해연도 최초 채집될 시

경보

다음 4가지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시

- ▶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밀도의 50% 이상 일 때
- ▶ 채집된 모기로부터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분리된 경우
- ▶ 채집된 모기로부터 일본뇌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경우
- ▶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5/8

일본뇌염 주요 증상

- 매개모기에 물린 후 5~15일 잠복기를 거쳐 대부분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납니다.
- 감염된 250명 중 1명은 바이러스가 뇌로 퍼지면서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합니다.
- 특히 뇌염의 경우 회복되어도 환자의 30~50%는 손상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 합병증: 인지장애, 마비, 운동장애, 언어장애, 발작, 정신장애 등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복통



6/8

일본뇌염 예방백신

-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은 표준 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권고합니다.
- 또한 ①는,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②일본뇌염 위험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유료)을 권장합니다.



7/8

모기물림예방수칙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 풀이 넓은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 하주세요.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해 주세요.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캠핑 등 야외 취침 시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 사용해 주세요.

가정 및 주위환경



방충망 점검 또는 모기장을 사용해주세요.



집주변의 물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은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고인 물을 없애주세요.

8/8